

# 무주군, 군민안전보험 알린다

군민이면 누구나 별도 가입 절차 없이 혜택... 사고 시 법정상속인이 청구해야 보상

무주군이 2019년 도입해 시행 중인 군민안전보험이 불의의 재난과 사고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인 군민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의지가 되고 있다.

무주군에 따르면 군민안전보험 가입 자 수는 올 3월 현재 2만2,157명(2021.3. 기준, 내·외국인 포함)으로 군민안전보험 시행 이래 총 2명이 재해로 인한 사망 또는 부상, 장애를 입어 보상을 받았다.

무주군 군민안전보험은 무주군민이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며 올해부터(2021. 3. 1. 00:00~2022. 2. 28. 24:00)는 보장내역이 기존 12개에서 코로나 19 등 감염병 사망 관련 보장, 가스 상해 및 사망, 후유장애 관련한 내역이 추가돼 15개로 확대됐다.

보장 내역은 ▲화재폭발붕괴사고 사망 ▲익사사고 사망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 포함)사망 ▲농기계사고 상해 사망, 후유장애, ▲대중교통상해 사망 ▲스쿨존 내 교통사고 부상 비용(부상1급~5급) ▲강도 상해 사망·후유장애 등이다.

보장금액도 5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로 무주군민과 무주군에 주소를 둔 외국인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누구나 혜택을 볼 수 있다. 또한 타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장된다.

무주군 안전재난과 안전민방위팀 김영식 팀장은 “우리 군은 군민안전보험 시행에 앞서 무주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를 제정해 보장 근거를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이어 “반드시 피보험자와 법정 상속인이 청구해야만 보상

을 받을 수 있다”면서 “예기치 않은 순간 불의의 사고를 당한 군민들이 제대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군 홈페이지를 비롯한 별도의 홍보물, 읍·면 전광판 등을 활용한 홍보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무주군 군민안전보험은 전·출입에 따라 자동 가입 또는 해지되며 타 지역에서 사고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또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28일까지 1년마다 자동 갱신이 되며, 보험청구 소멸 시효기간은 사고일로부터 3년이다.

이외 군민안전보험 관련 사항 문의는 무주군청 안전재난과(063-320-2265), 지방재정공제회 사고처리반(1577-5939)로 문의하면 된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수군의회는 '정부의 제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코로나19와 자연재해로 큰 피해를 입은 농업인을 포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 재난지원금 대상 농업인 포함 촉구

장수군의회, 코로나19 직·간접적 피해에도 한 번도 직접 지원 받지 못해

장수군의회(의장 김용문)는 '정부의 제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코로나19와 자연재해로 큰 피해를 입은 농업인을 포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4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690만명에게 최대 500만원까지 제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19조5,000억원에 달하는 역대급 규모의 추경예산안을 확정하고 국회에 제출했다.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계층을 더 넓게, 더 두텁게 지원하여 코로나19 피해 사각지대를 없앤다는 4차 재난지원금의 원칙을 세웠지만 정작 정부가 마련한 지원 대상자에 코로나19로 외식 소비 부진 및 지역축제 취소로 농산물 판매부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이 제외된 것에 우리는 깊은 유감을 표했다.

정부는 농가 소득 감소분을 명확히 산출하기 어렵고 통계상 농산물 가격이 하락하지 않았다고 말하지만 지난 해 긴 장마 등 각종 재해와 코로나19 상황이 겹치면서 쌀과 같은 농작물들의 생산량이 급감하는 등 농업인들의

피해는 막대한 실정이다.

이처럼 코로나19로 농업·농촌에 직·간접적인 피해가 계속되고 있고, 또한 친환경 농업, 화훼와 같은 시설 농가들은 비대면 온라인 수업과 입학식·졸업식 등으로 직격탄을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한 번도 직접적인 지원을 받지 못한 농업인이 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도 배제된 것에 농촌 현장의 실망과 분노가 커지고 있다.

특히 장수군은 전체 인구 1만1,554세대 중 농가가 6,050호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전체 소득 중 농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46%로 농업분야가 매우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농민에 대한 재난지원금 제외에 많은 군민들이 허탈감에 빠져 있다.

이에 장수군의회는 정부와 국회가 코로나19 확산 및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들의 피해 심각성을 인정하고, 이번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농업인을 포함해 줄 것을 전 군민과 함께 다시 한번 촉구하는 성명서를 의원 전원명의로 채택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 지역 소식 통

#### 진안군보건소, 건강행태 개선 지원 사업 운영

진안군보건소(소장 이임옥)는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이하 '센터')는 건강한 생활습관을 유도 하고, 고혈압·당뇨병 자가 관리 능력을 향상하기 위하여 건강행태개선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참여 대상은 주민등록상 진안에 거주하는 만 30세 이상의 주민으로 고혈압·당뇨병을 진단 받았거나, 센터에서 고혈압·당뇨병의 전 단계로 확인되어 건강행태 개선이 필요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다.

현재까지 총 51명 중 체중관리 48명, 콜레스테롤관리 3명이 등록하여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으며, 추가로 참여하고자 하는 주민은 센터에 방문하여 기초검사 후 3개월 동안 노력할 목표를 정하고 신청서와 동의서 등을 작성하면 된다. 건강행태개선 목표를 달성한 군민에게는 1인당 최대 5만원(온누리상품권)의 축하금도 지급된다.

/진안=우태만 기자

#### 무주군, 아토피 피부염 환자 의료비 연중 지원

무주군이 아토피 피부염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지역주민들을 위해 의료비를 연중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무주지역 내 아토피 피부염을 앓고 있는 환자들의 치료와 관리에 필요한 의료비를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차원에서다.

소득기준 중위 100%(4인 기준 월 소득 487만6,290원) 이하 가정의 아토피 피부염 진단자가 대상이며, 연간 1인당 50만원 이내(최대 5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절차는 피부과 전문의 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한방의료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진단서와 통장사본을 제출해 아토피 피부염 진단 등록자로 등록을 하면 된다. 등록일 이후부터 발생한 의료기관 처방전 또는 항목이 기재된 영수증을 발급 받아 무주군보건의료원에 신청서와 함께 청구하면 환자 계좌에 지원금이 송금된다.

자세한 사항은 무주군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로 문의하면 된다.

/무주=전문선 기자

## 진안군보건소, 수변지역 주민 대상 기생충 검사

간흡충·장흡충·회충 등 11종

진안군보건소(소장 이임옥)는 8일 감염 위험이 높은 수변지역 주민 700여명을 대상으로 기생충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보건소는 응답률이 있고, 하천이 많은 진안군의 지역적 특성으로 장내 기생충 발병률이 높기 나타나고 있어 2009년부터 매년 1,000명 내외로 장내 기생충퇴치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달라진 식생활 문화와 더불어 군의 지속적인 보건사업 시행으로 5%였던 기생충 감염률이 현재는 2% 대

로 대폭 감소하는 추세다.

이에 올해도 지리적으로 감염 위험도가 높은 수변 지역 주민, 민물고기 취급 업소 종사자, 어업권 소유자 등을 중심으로 기생충 검사를 실시한다.

검사 종류는 간흡충, 장흡충, 회충 등 11종의 기생충 검사를 실시하고, 기생충에 감염된 사람에 대하여는 무료 투약하며, 투약 후에도 재검사를 통해 지속적인 관리를 할 계획이다.

세계보건기구가 담도암의 1급 원인으로 지정하고 있는 간흡충은 5년 생존율이 20%에도 못 미치는 최악의 암으로 1급 발암성 고위험 병원체이다.

간흡충은 쓸개즙 통로인 담관에 기생하면서 담낭염, 담관염, 담도암 등을 유발하고 복통, 발열, 소화불량, 설사, 황달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간흡충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예방법은 민물고기를 날로 먹지 않는 것이며, 간흡충이 감염된 물고기에 접촉된 칼, 도마 같은 조리 기구는 끓는 물에 10초 이상 가열해서 사용해야 한다.

검사 희망자는 진안군 보건소(430-8544) 또는 해당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에 8일부터 11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진안=우태만 기자

## ‘노년이 든든한 무주’ 다양한 정책 추진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이·미·미용비 지원·일자리 제공 등

인구변화 해법 찾기에 나선 무주군이 다양한 정책 추진으로 눈길을 끌고 있다. 무주군은 '노년을 보내기에 든든한 무주'를 만든다는 방침이다.

무주군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3월 현재 8,082명으로 만 75세 이상 어르신들이라면 연간 12만원의 이·미용비(상품권 1만원 권 12매)를 받을 수 있다. 전입 또는 연령 때문에 신규 지원 대상이 됐다면 사유 발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독거노인 응

급안전안심서비스로 어르신들의 신체 활동과 안전생활을 지원한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생활지원사를 파견해 일상을 지원하는 것으로 1,428명이 대상이다. 독거노인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대상 어르신 가정에 움직임 감지 센서 부착을 지원(1,992대)하는 것으로 혼자 생활하는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독거노인 가구 중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가구 대상 홈 클리닝 사업도 추진한다. 홈 클리닝 사업은 집 안팎에서 방역소독을 진행하는 것으로 해

당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받는다.

어르신들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만족 시키며 건강한 여가와 사회참여를 위해 노인종합복지관도 운영한다. 주민등록상 무주군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 어르신이면 회원이 돼 건강생활을 비롯한 평생교육과 취미여가를 위한 프로그램들을 즐길 수 있다.

이외 노인대학을 비롯한 무료경로식당과 경로당 운영을 지원하며 무주시니어클럽과 대한노인회 무주군지회를 통한 노인일자리 사업(65세 이상)도 추진한다.

또한, 군은 화장장폐금과 추모의집 이용을 지원해 장사문화를 개선하는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 진안군, “탄소포인트제” 동참하세요

진안군은 8일 저탄소 친환경생활 실천으로 온실가스를 줄이고 생활비 절약과 인센티브까지 받을 수 있는 '탄소포인트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은 '탄소포인트제'는 저탄소 생활 실천의 시작으로 가정, 상가, 단지 등에서 에너지(전기, 상수도 등) 사용량 절감 시 제공하는 탄소포인트를 현금 또는 그린카드 포인트로 제공한다.

탄소포인트는 과거 2년간의 월 평균 에너지(전기, 상수도 등) 사용량을 비교해 감축률에 따라 산정하고 6월, 12

월 연 2회 인센티브로 지급된다.

지난해 기준으로 진안군 거주 1만 3,406세대 중 4,406세대인 33%가 탄소포인트제에 가입하여 에너지 절약에 동참하고 있다.

그 결과 2020년에는 탄소포인트제 운영으로 627톤의 온실가스(CO2)를 감축하는 성과를 거뒀다.

탄소포인트제 참여는 홈페이지(www.cpoint.or.kr)에 접속하여 온라인 가입하거나 참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진안군 환경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진안=우태만 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